



## 길림성 대외무역 괄목할 만한 성과 이룩

### 전 3분기 수출입액 동기 대비 11.1% 증가

이른아침 대양계, 달계, 대계 등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줄지어 중로 훈춘통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선다. 철도, 항공 등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해산물들은 훈춘에서 빠르게 전국 각지로 배송된다.

훈춘은 길림성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이다. 최근년간 훈춘시에서 지역 우세를 살려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을 다그치면서 훈춘통상구를 통해 수입되는 로씨야 활계(活蟹) 년평균 수입량이 국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 신선(生鮮) 해산물의 생존률과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현지 세관, 출입국변방검사소 등 부문에서는 협력을 통해 화물과 사람의 고능률적인 통관을 보장했다. 로해한 데 따르면 훈춘세관은 수입 신선해산물 통관에 녹색 통로를 열어주고 '7×24시간' 통관 봉사를 통해 24시간 예약을 접수하고 화물이 도착하는 대로 검사하고 통관시킴으로써 수입 신선해산물의 통관 속도를 높였다.

길림성상무청에서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전 3분기 길림성의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1,327.5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1.1% 증가하면서 전국 평균 성장률을 5.8% 포인트 초과했다.



그중에서 수출액은 489.2억 원으로 동기 대비 11.7% 증가하고 수입액은 838.2억 원으로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자동차산업은 길림성의 기간산업이다. 최근년간 길림성의 자동차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 확장했다. "세무부문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회사에서는 올해 납세 신용 등급을 제때에 회복하여 수출입무역의 순조로운 진척과 기타 기업과의 협조에 중요한 신용 보장을 마련했다." 제1자동차·폭스바겐자동차유한회사 재무일군 고춘홍의 말이다.

사업일군의 소홀로 이 기업은 2024년 납세 신용 등급 예심에서 등급이 하락되었다. "장춘시 세무부문에서 제1자동차와 연계하여 중점 세원(税源)기업 3급 런동기제를 가동해 강등 원인을 조사하고 회복에 관련된 건의를 제기했다." 세무부문의 건의에 따라 회사는 제때에 보충 신청하여 재심에서 납세 등급을 A급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고춘홍은 밝혔다.

무역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다그치기

중차장준계도객차주식유한회사의 성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5월말, 이 회사는 브라질 벨로리존타시와 24대의 지하철 열차 수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는데 이는 2012년에 리오 데자네이로에 고속열차와 지하철 열차를 수출한 데 이어 다시 브라질 도시와 체결한 지하철 열차 수출 계약이다. 최근년간 중차장준계도객차주식유한회사의 제품은 23개 국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대외무역의 한 축으로서 수입은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개방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길림성상무청 대외무역발전처 처장 성중은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전에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전 성 업종 기업과 관련 기구를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박람회 참가를 신청한 길림성의 기업은 1,604개, 인수는 3,610명에 이르렀다. 길림성교역팀은 18개 교역단체로 나누어 박람회에 참가해 계약 61건을 체결, 계약 외항 금액은 7.75억 달러에 달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길림성에서는 대외무역의 운행 관제, 봉사보장의 향상과 시장 개발 및 개척을 강화하고 시장, 품종, 업종 원칙 등에 따라 해외 참관단의 전시회 참가 계획을 세웠다. 한편 기업을 적극 조직해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북경)국제봉사무역거래회, 중국-유라시아박람회, 중국-아시아박람회 등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수주 경로를 확장하고 수출 계약을 증가했다. 전 3분기 길림성의 대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수출입액은 동기 대비 15.7% 증가하고 대 RCEP 국가 수출입액은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 경제일보

## 연길공룡온천호텔 래년 1월 1일 시험 운영



연길모아산(공룡) 문화관광구의 부단한 승격과 함께 자연과 현대 봉사를 결합한 새로운 고급호텔인 연길공룡온천호텔이 시공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알아본 데 따르면 금두 그룹이 6억 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이 대상은 2025년 1월 1일에 시험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공룡왕국 서쪽에 위치한 연길공룡온천호텔은 부지면적이 4만 4,500평방미터, 건축면적이 6만 249평방미터에 달하는데 모아산(공룡) 문화관광구에서 선보이는 최신 중점 문화관광 대상으로 이 구역 고급호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전반 관광구 품질과 경쟁력을 진일보 향상시킬 전망이다.

호텔은 온천을 핵심 특색으로 고품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온천구역 부지면적은 만 7,823평방미터로 무경계 수영장과 종합스파(水疗池)가 있다. 온천수에는 진귀한 중탄산염이 포함되어있기에 양생미용에 유익해 관광객들에게 보기 드문 레저양생 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호텔은 도합 232개 객실이 있으며 동물세계, 공룡왕국, 구석기시대, 환락수상락원 등 다섯가지 주제를 기획했는데 단독 별장에는 개인 온천탕도 설치했다. 호텔 연회장은 1,100평방미터의 면적에 높이가 12미터이다. 그외 3개 다기능 회의실은 물론 중식, 양식을 제공할 수 있어 부동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호텔 연회장은 혼례 및 대형 만찬 등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다기능 회의실은 회의와 회식 등 전면적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총경리 조영은 호텔측은 2025년 1월 5일 혼례쇼를 거행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길공룡온천호텔은 연길모아산(공룡) 문화관광구에서 출시한 중점 문화관광 대상으로서 모아산(공룡) 문화관광구의 봉사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연길시 호텔업종에서도 중요한 리징표로 될 전망이다.

/ 김영화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 장춘 - 울라지보스포크 항로 재개



11월 19일, 장춘공항 '장춘 - 울라지보스포크' 항로가 정식으로 재개되었다.

이번 항로는 로씨야항공이 운항하는데 항공편은 FV6617/18이며 매주 2일, 1편 운항한다. 구체적으로 울라지보스포크(해상위)에서 20:30에 출발하여 22:00에 장춘에 도착하고 귀항편은 장춘에서 23:00에 출발하여 다음날 00:30에 울라지

보스포크에 도착한다.

이 항로의 개통은 두 지역간 승객들을 위해 보다 많은 출행 선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춘과 울라지보스포크 사이의 국제교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

항공편이 안정적으로 운행됨에 따라 두 지역의 관광, 문화, 경제무역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깊이있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길림일보

## 연변, 국내 빙설관광 인기목적지 TOP10에 이름 올려

도우넷(途牛网)의 11월 초 예약 상황 통계에 따르면 올겨울 연변의 관광 예약 열기가 국내 빙설관광 인기 목적지 TOP10에 올랐다. 국내 빙설관광 인기목적지 TOP10에 오른 지역으로는 할빈, 백산, 목단강, 길림, 장춘, 북경, 장가계, 막하, 알타이, 연변이다.

겨울이던 빙설전지의 매력을 찾아 북방으로 향하는 남방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겨울 역시 동북지역을 찾아 빙설관광을 할 계획인 소비자중 남방 관광객이 80%에 달하는 가

운데 상해, 광주, 남경, 장사, 중경, 항주, 성도, 무석, 녜파, 심수 등 10개 지역의 관광객 객원지 TOP10에 올랐다.

알아본 데 따르면 전 주 8개 현(시)은 빙설자원을 적극 통합하고 차별화, 특색화 빙설상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새로운 관광 공간과 소비장면을 창출함으로써 빙설경제의 혁신 발전을 견인했다.

올겨울 연변에서는 '얼음과 눈놀이, 온천욕, 맛있는 음식 맛보기, 노래와 춤 감상, 새해맞이'를 주제로 100회

좌우의 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하고 50종의 미식을 추천하며 100개의 '연변 관광 필수 구매' 우수 제품을 공급하고 6갈래 주제 로선을 발표하여 '장백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문화관광 브랜드가 더욱 빛나게 함으로써 연변을 '전국 유명 빙설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1월 25일, 2024년-2025년 연변 빙설시즌이 시작되면서 연변은 '빙설관광, 빙설스포츠, 빙설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64개 '3+X' 특색 빙설활동을 잇달아 개최하게 된다. 여기에는

/ 연변조간

## 연 1,000만명 돌파! 연길차무단 2024년 러객 발송 신기록

11월 15일까지 중국철도 심양국립단유한회사 연길차무단은 연인수로 1,000만명의 러객을 발송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만명이 늘어났으며 증가폭이 22%에 달했다.

구간내의 관광자원에 의탁하여 연길차무단은 주동적으로 지역 문화관광부문과 협력하여 '피서관광', '빙설관광' 전략 의향을 상담하여 달성했으며 지속적으로 '왕홍 + 민속관광' 등 우리 성 만연급 '대관광' 서비스 프로젝트 50여개를 설계하여 내놓았다.

계속해 '해외로 나가기와 유치해 들이기'를 견지하여 지역 및 기업과의 련동 서비스 관련 마케팅 홍보 200여차를 전개함으로써 관내 4개 관광기



업 및 11개 관광지과 련동 전략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고속철도편 관광 티켓 우대' 등 해민 조치들도 내놓았다.

아울러 올해 들어 산해관, 단동, 당

산 등 지역에서 집산식으로 연길에 왔다가 로씨야로 향하는 전용열차 380여대를 인수하여 연 19만명에 달하는 단체관광객들에게 녹색 진입 통로를 개척해주었다.

/ 연길뉴스넷

## 영상시 고향의 달

